

전문가
인터뷰

BcN 표준화 분야 **이재섭** FGNGN 의장



표준화 분야의 글로벌 리더를 키워야

“외교 전문가의 양성에도 시간이 걸리며, 또 개인적으로 탁월한 인물 몇몇에 기대하기보다는 조직적으로 능력을 배양해야 하듯이 표준화 분야에서도 글로벌 리더를 만들기 위해 관련 분야 종사자들이 모두 힘써야 합니다.”

이재섭 FGNGN 의장은 국제표준화 활동을 외교에 비유한다. 표준화 작업 역시 기술적 능력과 함께 다양한 사회적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표준화 전문가 개인으로서는 기술에 대한 시각뿐 아니라 그 기술이 표준화돼 산업 및 사회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수 있는 넓은 시각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표준화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나라 성적은 그리 높은 편이 아니라고 이 의장은 평가했다. 아직 학계 일부에서 참여하고 있을 뿐, 산업계의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는 희망을 얘기했다. 모바일 WiMAX 부문에서 기술을 주도했을 뿐 아니라, 세계적인 파트너들을 끌어들이므로써 국제표준으로 만든 모범적 사례가 등장했다는 점이다.

앞으로 통·방 융합 시대가 도래한다. 이 의장은 “통·방 융합에는 마찰이 있고, 이 마찰은 장기적으로 유익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표준화 분야에서도 마찰이 있어야, 이 열기로 여러 분야가 하나로 뭉쳐질 수 있다는 논리다. 모든 표준화 전문가는 이 같은 융합을 위한 건설적 마찰을 기피하지 말고, 사회적인 중심을 잡고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장의 표준화 철학이다.

Q | 우리나라는 TTA 등 국가기관과 기업을 중심으로 국제표준화 활동을 하고 있다. 표준화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잘 하고 있는 부분과 미흡한 부분은 각각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 | 국내 전기통신산업 중에서 잘 하고 있는 분야는 서비스와 응용 부문이다. 통신망 시스템과 관련된 부문은 가장 낙후해 있다.

국가의 지원으로 통신사업자와 연구기관은 물론이고 학계 등에서 해당 분야의 표준화 활동 참가가 가능했다. 이를 통해서 학계의 잠재적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특
집

제
1
편

제
2
편

제
3
편

제
4
편

제
5
편

부
록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보완해야 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Q | 국제표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전략을 각각 제안해 달라.

A |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의 핵심은 표준화 전문가의 양성 및 지원이다. 표준화 전문가는 단순히 한 개인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국내 기술력을 글로벌화하고 대외 협상력을 갖춘 기술 외교관을 양성하는 것이다.

이제는 이들 전문가에게 좀더 적절한 시간을 분배해 이들이 기술 분야를 뛰어넘어 세계적 리더로서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기술적 전문가들의 활동을 국익으로 연계시키고 국가의 국제 참여 수준을 글로벌화할 수 있는 리더의 양성이 병행돼야 할 때다.

기업에서 갖춰야 할 전략으로는 종합적인 엔지니어링의 체질화와 이에 따른 표준화 추진이 필요하다. 단일 시스템의 개발이나 기술의 개발만을 가지고 이를 글로벌 시장에 내놓아 성공하기란 이제는 거의 불가능해 지고 있다. 기업은 기술이나 시스템을 개발할 때 이용자들의 서비스·응용은 물론이고 사업자의 설치와 운용 그리고 규제기관의 규제관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국내뿐 아니라 국제 환경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국제 표준의 필요성을 더욱 실감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Q | 최근 우리나라가 얻은 최고의 표준화 성과는 무엇이 있나? 그 사례에서 볼 수 있는 전략적인 시사점은 무엇인가?

A | 최근 우리가 얻은 최고의 표준화 성과로는 모바일 WiMAX(WiBro)의 표준화를 들 수 있다. 이는 개념 정립에서부터 기술 및 관련 시스템의 개발, 이를 상용화하기 위한 정부정책 그리고 이를 글로벌화하기 위한 표준화 전략까지 한 호흡이 되어 거둔 결실이다.

전략적 주요 시사점을 찾는다면 글로벌화를 위해 모든 외국 업체 및 사업자들과 협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가 찾아낸 아이디어에 우리가 개발한 기술이더라도 이를 외국 업체 및 사업자들과 협력이라는 고도의 외교 능력을 발휘해 글로벌 시장화해야 한다.

Q | IT분야의 기술 표준 전문가가 갖춰야 할 기본 요건과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 | 기술 표준전문가가 갖춰야 할 기본요건으로는 기술요건, 언어요건 그리고 사회적 요건을 들 수 있다. 기술요건은 기술의 산업적, 국가적, 국제적 응용과 이에 따른 파급효과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다. 궁극적으로는 회의를 주도하고 결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한다. 사회적 능력으로는 치열한 경쟁의 현장에서 개인적, 국가적 이익을 원활히 확보함은 물론이고 이를 뛰어넘어 글로벌 사회를 유도하고 형성할 수 있는 사회적 친화력이 요구된다.

Q | 표준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어떤 교육과정, 경력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A | 표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기술과 언어에 대한 교육 및 훈련, 더불어 기획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져야 한다. 표준화 과정 중 기술 토의의 대부분이 문서를 통한 자기 의견 표출 및 이를 기반으로 한 토론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경력 관리는 전문가의 수준에 따라서 초기:기술 개발, 도입기:시스템 개발, 전개기:시스템 기획, 개화기:개발 기획, 전문화기:사업 기획, 그 이후:종합 기획, 퇴출기:교육과 같은 경력 관리의 모형이 유익할 것이다.

- Q | 표준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귀하가 지금까지 올린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인가? 그 성과의 산업적, 경제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 A | 지난 1997년 IP 기반 통신망과 기존 전기통신망 간의 연동 표준을 논의하면서 IP 프로토콜을 전기통신에 사용하는 3개 평면 ‘이용자(데이터)’ ‘제어’ ‘관리’ 평면으로 나누어 표준화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당시로서는 처음이다. 그때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여겨져서 비난도 많이 받았다. 그러나 지금은 일반화된 개념이 돼 IP관련 표준화에 두루 사용되고 있다. 이를 근간으로 지난 2000년부터는 ‘미래의 네트워크(Future Network)’ 라는 주제로 ITU-T 안에서 지속적으로 차세대 망의 구조와 활용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 왔다.
- Q | 유무선 통신과 방송의 네트워크, 사업자가 통합되는 BcN 시대에는 기술 표준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 각기 다른 분야의 표준을 아울러 가장 효율적인 성과를 올리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 A | 융합의 진행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질 때 서로 분야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이를 극복하고 가장 효율적인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융합 과정에서 상이한 분야 간에 생기는 충돌과 마찰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이 마찰은 그 열기로 인해 서로의 부분을 녹여서 융합을 위한 준비과정을 형성하게 되고 이 결과로 여러 소수가 융합돼 거대한 하나가 되어 있는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나가게 된다.
- 표준화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용자의 편익과 사회의 균형이라는 잣대다. 기관 및 직원으로서의 주장을 할 때 사회 일원으로서의 나를 잊지 말아야 하며, 사업성과 경쟁력을 강조할 때 사회의 균형이라는 명제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 Q | BcN 분야에서 세계 각국이 주목하고 있는 기술표준 선점 분야는 어떤 분야인가? 이에 대한 우리의 전략은 무엇인가?
- A | BcN(NGN)의 국제 표준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표준 분야는 전달 제어 및 서비스 제어기술 분야다. 현재 어느 정도 안정돼 있는 다양한 액세스 및 백본망의 전달 시스템들을 활용하면서 여기에 전달 및 서비스 제어 능력을 첨부해 기존의 IP 기반 통신망을 고부가가치의 관리형 통신망 및 서비스 기반으로 전환시키기 위함이다. 우리나라 역시 이 같은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
집

제 1
편

제 2
편

제 3
편

제 4
편

제 5
편

부
록